

은은한 국화향·풍성한 공연... ‘익산의 가을’

천만송이국화축제 25일 개막

국화공전·유라시아 희망열차

형형색색 오색길 등 볼거리 다양

“은은한 국화향과 풍성한 공연, 익산에서 힐링하세요.”

제16회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가 25일부터 열흘간 전북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꿈과 사랑의 나라로 떠나는 국화여행’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 축제에서는 3만5000㎡의 넓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형형색색의 국화와 은은한 향을 즐기며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국화로 만든 미륵사지석탑, 왕궁리5층석탑, 국화 공전, 유라시아 희망열차, 아름드리 국화 언덕 등이 설치된다.

200여점의 국화 분재와 50여종의 신품종 국화, 수백 개의 우수 국화작품도 전시된다.

국화와 핑크블리, 유색 벚가 조화를 이루는 ‘형형색색의 오색길’을 걷는 즐거움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가 25일부터 열흘간 익산시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가 열리는 중앙체육공원 전경. <익산시 제공>

도 있다.

행사 기간 내내 통기타 공연, 클래식 공연, 음악분수 공연, 어린이 인형극, 동춘서커스, 천만 국화 노래자랑과 같은 문화행사가 이어진다.

국화 압화, 국화 향 주머니 만들기, 뜨

개 공예와 같은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

된다. 익산의 농특산물인 쌀, 고구마, 생강, 흑삼 등도 싸게 살 수 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지난해 64만여명이 다녀가 231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를 냈다.

익산시 관계자는 “국화와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며 힐링하는 자리”라며 “가족·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순창군, 세대통합형 실내놀이터 조성

2021년까지 41억원 투입...휴게실·작은도서관 등 갖춰

순창군은 오는 2021년까지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입해 세대통합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은 정부가 추진한 생활SOC 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1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온 상승 등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침해되면서 전국적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관심이 증가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은 현재 투자선도 지구 내 조성될 계획으로, 연면적 1500㎡

크기로 놀이·휴게·체육 공간,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놀이 공간에는 실내클라이밍, 정글집, 트램펄린, VR 체육실 등을 이용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휴게 공간은 보드게임, 영화감상,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 가족이 함께 자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작은도서관도 갖춰진다.

여기에 성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실까지 갖춰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및 문화복합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전북 우수중기 30곳 100명 규모 채용박람회

전북지역 우수 중소기업 30여곳이 100여명을 채용하는 박람회가 열린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은 구인·구직 난 해소를 위해 24일 오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2019 전북 중소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도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과 우수 중소벤처기업 등 총 32곳이

참여해 연구직 및 사무·생산직 등 총 1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당일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에게는 2만 원의 면접비가 지급된다.

또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 상담, AI 면접 체험, 이력서 사진 촬영, 이미지메이킹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음악극 ‘녹두꽃은 영원하리’ 공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 특별기획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음악극 공연을 마련했다.

정읍 궁중음악 계승·보존사업을 펼치고 있는 정읍 수제천보존회는 24일 오후 7시 30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창작 음악극 ‘녹두꽃은 영원하리’ <포스터>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기념 특별기획으로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정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는 민초들의 애환과 정신을 음악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할 예정이다.

정읍 수제천 연주단은 음악극의 배경연주를 맡아 전체 선율을 이끌어간다.

수제천 보존회 관계자는 “말이나 글이 아닌 음악을 수단으로 동학 정신을 보여준다는 것은 정읍이 그만큼 수준 높은 문화 인물도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연은 전북도민회 장기철 상근부회장이 전체 줄거리를 정리해 초고를 작성하고 박성우 시인이 대본을 완성했다.

또 정읍의 향토문화를 연구하는 김재영 소장과 조광환 소장이 내용 자문을 맡고 수제천 보존회의 이금섭 예술감독이 음악



전체를 작곡했다.

음악극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박흥규 작가의 판화 작품은 각 장면의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신동엽, 김용택, 안도현, 도종환, 김인태, 박성우 시인들의 작시는 이번 음악극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극배우 최경원이 연출과 나레이션을 맡아 작품의 생동감을 더하며 무용과 성악 등 다양한 출연진으로 음악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누구나 선착순 관람이 가능하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조선무기 비격진천뢰’ 전시회

25일 고인돌박물관서...무장음성 출토 11점 등

고창군이 ‘2019 조선무기 특별전, 비격진천뢰’ 전시회를 개최한다.

고창군고인돌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무장음성에서 출토된 비격진천뢰를 알려 지역민의 자긍심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회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계속된다.

비격진천뢰<사진>는 무쇠의 탄환 속에 화약과 쇳조각을 넣고 폭발시간 조절장치(타이머)까지 갖춘 조선시대 독창적인 최첨단 무기로 임진왜란 당시 비밀병기, 귀신폭탄, 시한폭탄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서울 창경궁 발견품으로 추정되는 보물 제860호 등 총 5점만 전해지다가 지난해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음성(사적 제346호) 발굴조사에서 11점이 출토돼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고창군은 올해 초부터 (재)호남문화재연구원, 국립진주박물관(임진왜란 전문 박물관)과 함께 무장음성 출토 비격진천뢰에 대한 보존처리와 과학적 분석을 진행하며 특별전을 준비해 왔다.

이번 고창군의 특별전은 보존처리가 거의 완료된 비격진천뢰와 이를 발사했던 화포인 완구(보물·국립진주박물관 소장)와 진주성과 장경궁(추정)에서 발견된 비격진천뢰 등을 한자리에서 함께 실물 전



시한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비격진천뢰의 과학 분석과 기존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새로이 밝혀낸 제작·조립 과정 및 3D프린트 복원품 등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임진왜란 장면을 연출한 몰입형 대형영상(인터랙티브 맵핑)을 통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높여줄 전망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우리 선조들이 지혜를 모아 만든 비격진천뢰가 무장현 관아와 음성에서 다량으로 출토돼 다양한 조선무기와 최첨단 기술을 재조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한 선조들의 마음을 배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비격진천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앞으로 무장현 관아와 음성 및 비격진천뢰의 효율적인 보존과 활용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형권 작가 명예시민증 수여식



역사소설 ‘남원성’ 고형권 작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역사소설 ‘남원성’을 집필한 고형권 작가가 남원시의 명예시민이 됐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지난 21일 고 작가를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다.<사진> 고 작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소설 ‘남원성’을 출간했다.

소설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지키던 1만 의사가 왜적에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혈전을 다뤘다.

남원성 전사자들의 코는 소금에 절여져 도요토미 히데오시 앞으로 가게 됐다고 한다.

남원성 전투에서 전몰한 만인의 죽음은

이후 왜군들의 전력을 소진하게 해 전선에서 후퇴하게 했다. ‘남원성 전투’는 결정적으로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호남인들의 전투이므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고 고 작가는 말한다.

또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되며 코 무덤의 원혼은 ‘만인의총’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남원성 전투를 조선 민중의 빛나는 승리로 재조명하고 일본 교토시 코 무덤을 남원으로 이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고 작가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